



With KAU Webzine

Sixth Steps

신입생들은 우리에게 맡겨만 달라구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2021-2 3중멘토 활동

LCSI 진로적성 워크숍 개최 “자기탐색과 성장”	2
2021 흥미진진 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우수작 선정	3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틀들이와 아이들 (오픈채팅방에서 멘토의 닉네임)	5
B타민 (B반에서 통통 튀는 비타민 같은 매력 발산)	7
소학행 (소프트웨어학과 행복하자)	9
항린이들 (항공대에 재학하는 새내기들을 어린이를 돌보는 마음)	11
애쉬아일랜드론 (멘토의 최애 ‘애쉬아일랜드(래퍼)와 드론)	12
어디로가야하조 (공학계열의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	14
항커 (항교물 학생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공적인 멘토링)	15
너나들이 (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17
자전 무야호 (그만큼 신나다)	18
슬기로운 경영생활 (슬기로운 경영학부 생활을 위한 멘토링)	19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모스크바 신사	21
---------------	----

11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24
------------------------------------	----

새내기성공센터 12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6
-----------------	----

LCSI 진로적성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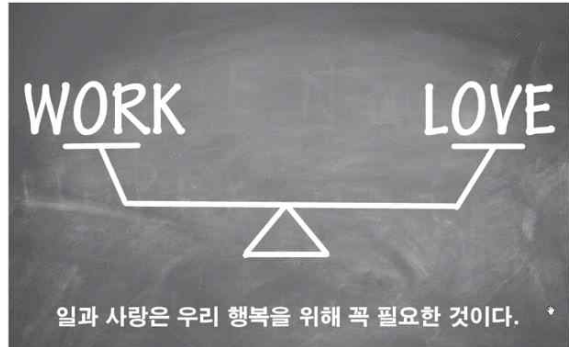
“자기탐색과 성장”

스스로 해보는 LCSI 진로적성 검사 해석



림스 연구소
Lim's A.C.
L.I.M.'S ASSESSMENT CENTER

일과 사랑의 균형



새내기성공센터에서는 지난 11월 12일 LCSI 진로적성 검사를 통한 진로적성 워크숍을 실시했다. 멘토와 멘티가 LCSI 검사를 실시하고 “자기탐색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사전에 실시된 LCSI 진로적성 검사 결과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또 이번 LCSI 진로적성 워크숍은 7가지 특성의 개인 프로파일을 통하여 개인 성격과 대인관계, 직업적성 등을 파악하고 자신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집단활동을 통해 자신과 같은 성격유형, 자신과 다른 성격유형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우는 “검사결과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더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알려주셔서 유익했다.”고 말했으며 다른 학우는 “비대면 워크숍이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해서 아쉬웠으나 자신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새내기성공센터는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친구관계, 학업, 진로결정 등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진로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신청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2021 흥미진진 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우수작 선정



새내기성공센터는 ‘흥미진진 진로심리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흥미진진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후기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흥미진진 진로심리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학우들에게 진로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기를 탐색하고 진로설정, 관심분야, 미래 설정의 정보제공 측면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내용으로 양질의 진로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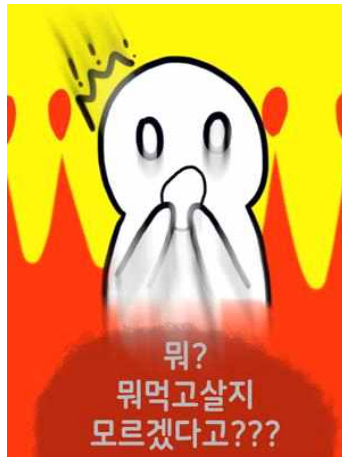
공모전 접수결과, 총 27명 학우가 참여했다. 공모전에 참여한 자유전공학부 학우는 "새내기의 진로설계를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STRONG 직업흥미검사 △CST성격강점검사 △MBTI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꼽았으며 "우연히 참여한 세가지 활동에서 얻은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으로의 나의 일상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있어 큰 준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MBTI 특강을 참여하고 공모전에 참여한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학우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MBTI 특강을 통하여 멘티들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활동을 진행하면 훨씬 잘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전했으며 "추후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다른 멘티들도 더욱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심리 프로그램’은 △STRONG 직업흥미검사 △CST성격강점검사 △진로가치관카드검사 △MBTI 나도 너를 알고 싶어 △LCSI 진로적성 워크숍 등이 있으며 역량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흥미진진 프로그램에 420여명의 학우가 참여하여 자기탐색, 대인관계, 진로직업준비 등 항목별 결과보고서를 제공 받고 해석상담을 통하여 진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앞으로 센터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흥미진진 진로심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심리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 후기 공유를 통해 흥미진진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많은 학우들이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틀틀이와 아이들”
오픈채팅방에서 멘토의 닉네임이 틀틀이라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첫 만남.



3월



4월

팀명 활동목적

- 틀틀이와 아이들
- ☆ 새내기들의 즐거운 대학생들과 뛰어난 학업성취
- ☆ 진로탐색의 기회 마련

우리 뭐하지?

- 기계공학과 학생은 기본적으로 4대역학을 중심으로한 전공지식이 뛰어나야하며 그 이후에 코딩이나, 어학능력 등의 자기만의 특색있는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기에 처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계공학이 자신과 안 맞다고 생각해 전공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공부는 고등학교때와 달라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따라 갈 수 없기에 당연한 말이지만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수강하고 복습 할 수 있도록 안내 함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틀틀이와 아이들”
오픈채팅방에서 멘토의 닉네임이 틀틀이라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활동

[

5월



7월

]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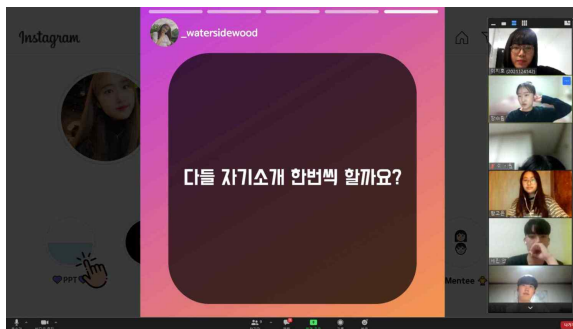
- 여러 학문 분야를 탐색해 자신의 진로 설계를 하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부장 교수님과 대학원 선배들로부터 대학생활과 진로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이수용 교수님 연구실 견학 후 저녁식사 자리를 갖음.
- 카톡방에서 추천을 통해 강의 교재를 물려주기 위해 만난 후 교재 전달 후 학생식당에서 중식식사 자리를 갖음
- 화석이라고 불리는 학번에 새내기들과 말 섞어볼 기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어 행복했고 2학기때는 좀 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진행 예정

항공전자정보공학부 “B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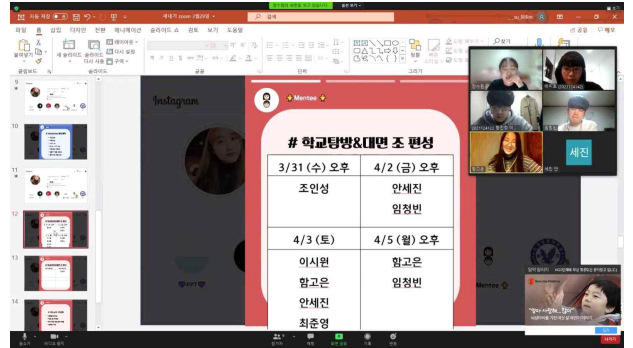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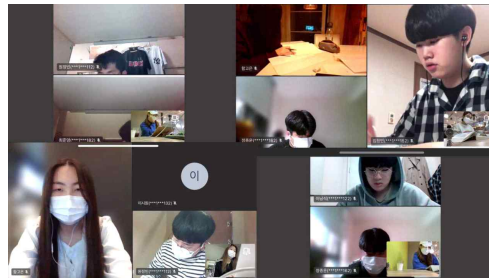
B반에서 통통 튀는 비타민 같은 매력을 발산하는 팀이 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만남.

3월



5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B타민

- ☆ 새내기 멘티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여러 팁을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며 학교생활 적응하기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자주 와보지 않았던 멘티들을 위해 학교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학관(학교식당, 동아리방위치), 도서관(도서관 이용방법), 기숙사(위치), 강의동(4층 열람실), 전자관(카피콜 위치), 기계관, 과학관을 돌아보고 학교생활에 관한 팁도 전수함.
- 화상으로 카메라를 켜고 참여하며 함께 공부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함 (언제든 마이크를 켜고 멘티들끼리 질의응답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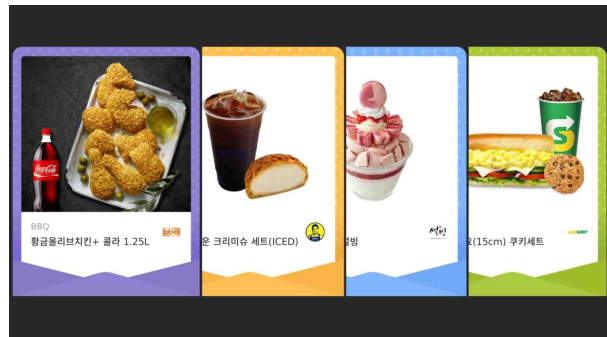
항공전자정보공학부 “B타민”

B반에서 통통 튀는 비타민 같은 매력을 발산하는 팀이 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5월



7월

우리 뭐하지?

- 시험공부로 지쳤을 멘티들에게 응원차 야식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식상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멘토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해당시간에 댓글을 먼저 다는 순으로 야식을 차등지급하여 댓글을 달며 주제에 대해 멘티들끼리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게 됨.
-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멘토링의 핵심인 3중 멘토링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맡아 진행하고 정리하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한 Study with B타민 프로그램으로 멘티들과 시험기간에 같이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소학행”
소프트웨어학과 행복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첫 만남.



] 3월



] 5월



팀명 활동목적

▣ 소학행

- ☆ 다양한 활동을 통해 1년뿐만아니라 계속해서 끈끈한 선후배 사이 관계 형성
- ☆ 새내기들이 비대면 학교생활 속에서 쉽게 적응하게 도와주는 기회

우리 뭐하지?

- ▣ 항공대에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 친구들에게 학교 소개시켜 준 후, 저녁을 함께하고 새내기 친구들을 4명씩 나눠서 학교의 곳곳 유용한 곳을 소개시켜준 후, 고기를 먹고 보드게임카페에서 다같이 게임을 진행 함

소프트웨어학과 “소학행”
소프트웨어학과 행복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활동.

]

5월



7월

[



우리 뭐하지?

- 흥미진진 MBTI talk 진행 : 원래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뒷풀이로 밥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됨. 7명의 멘티가 참여를 하여 비대면 줌으로 진행했지만 실시간으로 투표 및 의견을 받으며 진행하여 각자 한 주제에 대해서 모두 다른 시각을 가지는구나,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함
- 학관 앞에서 진행하는 만우절 행사에 참여하고 학식을 먹은 뒤 강의동 4층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음
- 우리 랩실에서 진행한 전공 행사에 멘티들이 참여하여 제가 준비한 발표를 진행하고 멘티분들이 경청 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짐

신소재공학과 “항린이들”

항린이들은 항공대에 재학하는 새내기들을 어린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키워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7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항린이들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 간의 우애 형성

- ▣ (항공대 야경 탐방, 저녁 식사) 학교 앞 중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 후 학교 탐방을 진행하였으며 항공대학교는 밤에 예쁘다고 생각해서 야경을 함께 보며 학교에 대해 설명 해주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 ▣ 멘티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잘 따라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남은 학교 생활을 함께할 귀여운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함.

스마트드론공학과 “애쉬아일랜드론”

멘토의 최애 ‘애쉬아일랜드(래퍼)와 스마트드론공학과 신입생들’의 콜라보

첫 만남.



3월



5월

팀명 활동목적

▣ 애쉬아일랜드론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대학생활 꿀팁 대방출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 신설학과이므로 앞으로의 선배가 될 준비들

우리 뭐하지?

- ▣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방구석에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멘토링팀의 대부분이 남자친구들이었기에 롤 하면서 친목도모
- ▣ 노뎃돌 행사에 참여하여 학부(과)장 간담회 및 연구실 투어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투어까지 진행

스마트드론공학과 “애쉬아일랜드론”

멘토의 최애 ‘애쉬아일랜드(래퍼)와 스마트드론공학과 신입생들’의 콜라보

우리활동.

5월
7월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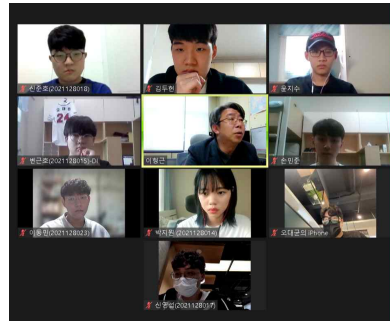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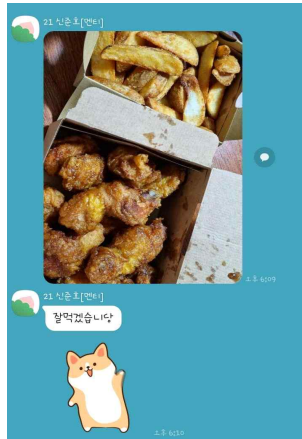
- 흥미진진 MBTI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음. 멘티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고 싶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라 너무 고마웠고 서로 자신의 mbti에 대해 얘기하고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논하며 서로의 성격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음.
-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방구석 친목도모 진행. 21학번끼리도 아직 친하지 않아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자기소개를 하며 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야식을 지원해주어 서로 치킨을 맛있게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눔
- 멘토링을 하면서 참여했던 활동들로 인해 저도 배운 것이 많았고 또한 열심히 참여해준 멘티들에게 고마움을 전함.

공학계열 “어디로가야하죠”

공학계열로서 2학년에 어느 학과로 들어갈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어디로가야하죠

- ☆ 새내기들의 즐거운 대학생활 위한 Tip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선배 및 동기들과의 우정 쌓기
- ☆ 학업에 있어 겪는 어려움들을 위한 조언 얻기

▣ 화전역 주변 식당 방문하고 보드게임을 통해 대화에서 어색함이 흐르지 않은 채로 친해질 수 있었으며,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친목을 모도 함

▣ 3중 멘토링을 통해 낯선 대학 생활에 도움될 tip과 교수님의 조언 등을 통해 대학 생활에 있어 궁금증과 어색함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 함

▣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로 지친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 활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치킨 기프티콘 이벤트 개최

항공교통물류학부 “항커(항공 커뮤니케이션)”

1학년 때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과목명을 빌려왔으며 항공대 항공물 학생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공적인 멘토링을 바라며 팀명을 지었습니다.

첫 만남.



3월

4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항커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
- ☆ 팀원 간의 친밀감, 유대감 형성

- ▣ Zoom을 통한 첫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며 자기소개, 시간표 공유, 가장 기대되는 과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3월에 학교 탐방을 진행하기로 하여 소규모의 조를 구성함
-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대한항공 운항관리사 동문과의 멘토링을 통하여 항공교통관제와 운항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세한 현장 경험을 청취하며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짐.

항공교통물류학부 “항커(항공 커뮤니케이션)”

1학년 때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과목명을 빌려왔으며 항공대 항공물 학생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공적인 멘토링을 바라며 팀명을 지었습니다.

우리활동.

5월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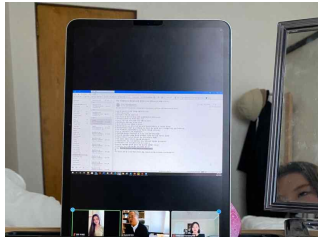
우리 뭐하지?

- 코로나로 인해 4명씩 나눠 총 3회의 대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소개 (과학관, 강의동, 학관, 본관, 도서관), 강의동 4층 자습실에서 함께 공부, 흥대 보드게임 카페에서 친목 도모하고 함께 저녁으로 곱도리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짐
- 시간이 되는 학우들끼리 모여서 함께 중간고사 공부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내기 인트로 미션을 수행하고 굿즈를 수령 함
- 멘토로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던 한 학기였으며 주도적으로 간담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며 멘토와 멘티 서로간에 많은 성장함을 느낌.

항공운항학과 “너나들이”

너나들이는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멘토와는 물론 멘티간에도 친밀감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선택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 너나들이

-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혹은 블렌디드) 학기에도 멘티들의 소속감과 단합력 상승,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 멘티들의 학교 적응에 다방면으로 도움

우리 뭐하지?

- ▣ 코로나로 인하여 소규모로 인원을 분산하여 인트로미션을 실시하고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캠퍼스 탐방을 하여 코로나로 인해 낮아진 학교 소속감을 고취하고 멘티들 간 결속감을 다짐.
- ▣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할 데 없는 21학번 멘티들에게, 같은 코로나 세대인 20학번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팁을 알려주며 식사를 하고 고민상담을 나눈 결과 분위기가 편안해졌고 서로간에 신뢰를 형성 함.

자유전공학부 “자전 무야호”
그만큼 신나다는 뜻의 팀명입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 ✓ 물류는 분야가 넓은데 CJ 대한통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CJ 대한통운에는 다른 어떤 분야의 직종들이 있을까요?
- ✓ CJ 대한통운만의 회사 근무환경과 복지는 어떤가요?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기대할만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 ✓ 물류 기업들 중에서 CJ 대한통운만의 장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자전 무야호

- ☆ 21학번 새내기들의 인싸적인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함
- ☆ 신입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기 위함

- ▣ 축구를 통해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희망하는 멘티에 한해 풋살을 다른 선배들과 진행하여 친목을 도모함
- ▣ 멘토와 멘티가 식사를 하며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멘토로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알려줌
- ▣ 한 학기 동안 멘토이자 선배로서 멘티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다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좋게 의견을 전해 주어 보람찬 멘토링이었음.

경영학부 “슬기로운 경영생활”

말 그대로 슬기로운 경영학부 생활을 위한 한학기 멘토링!

첫 만남.



3월



4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슬기로운 경영생활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 새내기 친구들에게 화전역 거리와 맛집들에 대해 소개해주었고, 그 후 같이 점심을 먹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마치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서로 빠르게 친해져서 놀랐고, 재밌게 이야기 함. 시작이 좋아~ ㅎㅎ
- ▣ 21살 멘티들만 따로 연락해 신촌에서 만남을 갖고 다들 동갑이어서 동질감을 느꼈는지 '서로 친해지기' 프로젝트 중 가장 빨리 서로 친해졌고, 헤어질 땐 아쉬워서 바로 다음주에 다시 만나는 약속을 잡았음 ^^

경영학부 “슬기로운 경영생활”

말 그대로 슬기로운 경영학부 생활을 위한 한학기 멘토링!

우리활동

5월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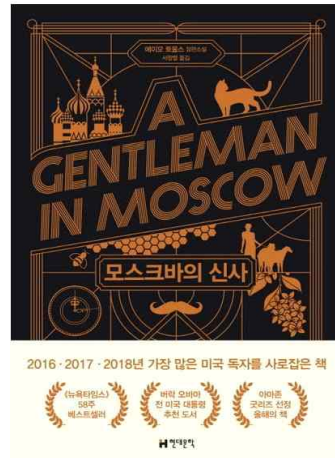


- 일산 근처에 사는 멘티들과 멘토가 만나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친해지고 3명씩 앉아서 같이 치킨~ 날씨, 풍경, 기분 모두 완벽했던 날!
- 항전정 멘토들의 멘티들과 경영학부 멘티들이 같이 열체크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같이 풋살을 진행하며 연합멘토링을 통한 인적네트워킹 하는 계기를 마련함.
- 팀즈에서 만나 공부를 같이 진행했으며 중간중간 간식, 식사 등도 하며 재밌게 공부했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멘티들이 다들 성적이 너무 잘나와서 굉장히 뿌듯했음
- 새내기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항공대 구석구석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운 좋게도 일등을 차지했으며. 멘티들 모두 치킨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 ㅎㅎ!! 2학기도 파이팅!

우리 뭐하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 ★★빌 게이츠, 2019년 여름 추천 도서 선정
- ★★뉴욕타임스 59주 베스트셀러
- ★★전 세계 30개국 출판 계약, 전미 150만 부 판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17년 추천 도서
- ★2016 아마존·굿리즈 선정 올해의 책
- ★2017《타임스》,《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책
- ★2018 더블린문학상 후보
- ★케네스 브래너 제작·주연 TV 드라마화



『모스크바의 신사』에는 소설의 거의 모든 것이 골고루 담겨 있다 빌 게이츠(2019년 5월 20일)

멜린더와 나는 때때로 같은 책을 동시에 읽는다. 그것은 보통 무척 재미있는 일이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분량을 읽었을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최근 우리 둘 다 에이모 토울스의 『모스크바의 신사』를 읽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느 시점에선가 내 눈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작중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멜린더의 진도는 나보다 몇 장 뒤쳐져 있었다. 내가 우는 것을 본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는 인물이 죽을까 봐 걱정되었다. 나는 아내의 독서를 조금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내 진도를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 한 장면은 제쳐두고, 『모스크바의 신사』는 재미있고 영리하며, 한 남자의 눈을 통해 러시아 역사를 놀랍도록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이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은 모스크바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평생을 가택연금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형에 처해진다. 때는 1922년, 볼셰비키가 새롭게 형성된 소비에트 연방의 권력을 막 장악한 시기이다. 소설은 이후 3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백작의 뒤를 따라간다.

비록 이 작품은 허구이지만 메트로폴은 실재하

는 호텔이다. 운 좋게도 나는 심지어 그곳에서 묵기까지 했다(대부분 토울스가 이 소설에서 묘사한 것과 똑같아 보였다). 그곳은 다른 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길을 사이에 두고 크렘린 맞은편에 위치한 이 호텔은 볼셰비키 혁명과 소비에트 연방의 흥망성쇠를 용케 잘 견뎌내고 살아남았다. 하나의 건물치고는 아주 많은 역사가 담긴 호텔인 것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은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지만(내가 아는 한 그렇다), 그러나 메트로폴 호텔의 역사를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기억할 만한 한 장(章)에서 볼셰비키 관리들은 와인 목록이 존재하는 것은 ‘혁명의 이상에 어긋난다’고 결정한다. 호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와인 저장고에 있는 10만 병이 넘는 와인 병에서 라벨을 떼어내야 하고, 그곳 식당에서는 모든 와인을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자신을 와인 전문가로 여기는 백작은 충격을 받는다.

로스토프 백작은 시간이 멈춰버린 관찰자로서 이 같은 변화가 오고가는 것을 지켜본다. 나에게 그는 작품 속의 다른 인물들과는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는 그 모든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는데, 그 이유는, 음, 그가 모든 것에 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온갖 책을 다 읽은 것 같고, 어떤 음악도

다 알아볼 수 있는 듯싶다. 호텔 식당에서 웨이터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풍당당하게 그 일을 해낸다. 그는 누구보다도 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전혀 수줍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남들과 나눈다. 백작은 너무 잘난 탓에 참고 봐줄 수 없는 인물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모든 게 잘 굴러간다.

작가 토클스는 세부 사항을 기발하게 기술하는 재능이 있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백작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다음 평소 하던 대로 메뉴를 식사 순서의 역순으로 살펴보았다. 앙트레를 정하기 전에 애피타이저를 먼저 고르면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술은 한 인물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준다. 책을 다 읽었을 무렵에는 백작이 나의 오랜 친구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소설을 즐기기 위해서 꼭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 나는 20세기 초의 러시아 역사가 엄청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레닌과 스탈린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읽었다. 『모스크바의 신사』는 비록 허구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내게 주었다. 토클스는 백작에 초점을 맞추므로 대부분의 주요 역사적 사건(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들이 지나가는 언급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 사건들이 여전히 메트로폴의 세계를 크고 작은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것은 정치적 혼란이 그 혼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모스크바의 신사』가 놀라운 이야기인 이유는 이 작품이 모든 것을 골고루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환상적인 로맨스와 정치, 스파이 활동,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시(詩)가 있다. 이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 소설이지만, 스릴러나 러브 스토리라고 불러도 역시 정확한 표현일 것

이다. 러시아가 여러분의 ‘반드시 가봐야 할 곳’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해도, (이 책을 읽는) 이번 여름에는 모든 사람이 토클스의 모스크바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With KAU 11월 웹진 퀴즈 EVENT

**Q. 대학내 중앙도서관에 위치한
이 장소에서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종합일간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1.11.20 ~ 12.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7호 (12.20)



**With KAU 10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학생회관

2021****51 이○재

2021****45 이○수

2021****36 김○수

2021****02 강○경

2021****83 정○윤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2021년 12 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Plan	Plan	1 Plan	2 Plan	3 Plan	4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생각정리스킬 특강	
5 Plan	6 Plan	7 Plan	8 Plan	9 Plan	10 Plan	11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12 Plan	13 Plan	14 Plan	15 Plan	16 Plan	17 Plan	18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23 Plan	24 Plan	25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6 Plan	27 Plan	28 Plan	29 Plan	30 Plan	31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2 새내기 대학생활가이드 공모전				멘토활동 뽐내기 공모전 접수마감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 N L I N 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